벨기에, 무르익은 황금세대 … 하나같이 빛났다

‘꽃길’ 예고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벨기에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아자르

벨기에 황금세대가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마무리했다.

벨기에는 1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3·4위전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1986 멕시코 월드컵 4위를 넘어선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비록 사상 첫 결승 진출엔 실패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에 성공했다. 3·4위전까지 오는 여정도 아름다웠다.

에덴 아자르(첼시), 로멜루 루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케빈 데 브라이너(맨체스터 시티) 등 황금세대의 활약이 빛났지만 더 빛난 것은 이들이 완전히 한 팀으로 뭉쳤다는 것이다.

각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스타 선수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적으로 만난 사이지만 벨기에 유니폼을 입고는 완벽한 원팀을 구축했다.

주장 아자르를 중심으로 한 23명의 선수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지휘 아래 그 어느 팀보다 단단한 조직력을 갖췄다.

잉글랜드 꺾고 3위로 최고 성적
아자르·루카쿠 등 슈퍼스타 즐비
10명이 15골 … 누구나 슈팅 능력
힘·기술·정신력 ‘원팀’ 완벽 구축

국제축구연맹(FIFA)도 벨기에의 최대 강점을 ‘팀 정신’으로 꼽고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에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후보 선수나 조력자의 역할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한두 명의 스타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벨기에의 강점은 폭넓은 득점원으로도 확인된다.

벨기에는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 8강, 4강, 3·4위전까지 7경기를 치르는 동안 모두 16골을 넣었다. 이번 월드컵 출전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이다.

이중 상대 자책골을 제외한 15골을 모두 10명의 선수가 합작했다.

루카쿠가 가장 많은 4골을 넣었고, 아자르도 3·4위전 득점까지 3골을 넣었다.

케빈 데 브라이너, 드리스 메르텐스, 미치 바추아이, 아드난 야누자이, 나세르 샤들리, 마루안 펠라이니, 얀 페르통언까지 1골씩을 넣으며 벤치 멤버도, 수비수도 득점에 가담했다.

단일 대회 한 팀에서 10명이 골을 넣은 것은 1982 스페인 월드컵의 프랑스, 2006 독일 월드컵의 이탈리아가 기록한 최다 기록과 같은 것이다.

벨기에가 이번 대회에서 공격력이 두드러진 팀이긴 했지만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도 탄탄했다.

이날 잉글랜드 에릭 다이어의 슈팅을 골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낸 토비 알데르베이럴트의 호수비는, 벨기에의 3위가 23명의 선수가 모두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며 이뤄낸 성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원팀’ 벨기에 인상적인 모습은 향후 몇 년간 유럽 무대에서 ‘붉은 악마’(벨기에 대표팀 별명)가 보여줄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연합뉴스

아자르 레알 이적?
“이제 다른 곳 찾아야 할 때”

벨기에 축구 대표팀 ‘핵심 공격자원’ 에덴 아자르가 소속팀 첼시(잉글랜드)를 떠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유력한 새로운 둥지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떠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다.

아자르는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지난 6년 동안 첼시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제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 할 때”라며 “최종 결정은 첼시가 해야 한다. 첼시가 놔준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선호하는 종착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자르가 밝힌 ‘선호하는 종착지’는 레알 마드리드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를 이적시킨 뒤 전력 보강 차원에서 아자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지난 12일 “레알 마드리드가 1억5000만 파운드(약 2223억원)의 이적료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KIA,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 기대해도 되나요”

타이거즈 전망대

전반기 6위 마감…후반기 시작
폭염에도 던지고 달리며 맹훈련
이번주 삼성·KT와 홈 6연전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오른쪽)과 최형우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러닝을 하며 후반기 첫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KIA는 16일에도 훈련을 한 뒤 17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통해서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전반기 부진을 털기 위한 ‘호랑이 군단’의 포효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3·14일 올스타브레이크를 맞아 휴식을 취했던 선수들은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훈련을 재개했다.

이날 광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지만 ‘베스트 12’ 안치홍을 비롯한 올스타전에 참가한 김민식과 김윤동을 제외한 선수들은 뜨거운 훈련 열기를 보이며 후반기 선전을 다짐했다.

지난해 우승팀에 빛나는 KIA지만 전반기는 낙제점에 가깝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였던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3연전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하는 등 KIA는 5연패로 2018시즌 반환점을 돌았다. 40승 45패가 되면서 ‘-5’. 선두 두산 베어스와 17경기 차의 6위다. 5위 넥센 히어로즈가 2.5경기 차 밖에 있고, 4위 LG 트윈스와는 6경기 차까지 벌어진다. 7위 삼성 히어로즈와 8위 롯데 자이언츠는 2.5경기 차로 KIA를 쫓고 있다.

총체적 난국 속에 힘을 쓰지 못했던 KIA는 삼성 이어 kt위즈와 홈 6연전을 통해 후반기 반격에 나선다.

‘우승 공신’으로 맹활약했던 지난해와 다른 시간을 보낸 투·타의 핵 임기영과 이명기는 “무조건 잘하겠다”는 각오다.

임기영은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또 순간을 넘지 못했다. 결정적일 때 한방을 내주면서 순간 흔들렸다”며 “전반기 내내 너무 안 풀리다 보니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이다. 이닝을 길게 못 가져가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마운드에서 침착해야 하는 데 그게 잘 안됐다. 후반기에는 팀의 반등을 위해 머리를 비우고 차분하게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위 팀의 1번 타자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던 이명기도 부진으로 2군에 다녀오는 등 전반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명기는 “2군에 내려가서 타이밍에 신경 썼다. 투수와의 타이밍을 연구하면서 준비했다”며 “타격감에 신경 많이 썼는데 감만 잡다가 시즌이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다. 감이 좋은 안 좋든 무조건 잘해야 한다. 결과가 중요하다. 감이 좋지 않다는 핑계 없이 무조건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16일에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한 뒤, 17일부터 후반기 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윤동 ‘올스타 우수 투수’
‘나눔 올스타’ 4년만에 승리

KIA 타이거즈 김윤동의 ‘올스타 상복’이 터졌다.

KIA 김윤동은 지난 14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2018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우수투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눔 올스타(KIA·NC·넥센·한화·LG)가 호잉(한화)·유강남(LG)·김하성(넥센)의 홈런 3방으로 5-0으로 앞선 6회말. 이보근(넥센)의 난조와 김하성의 실책 등으로 드림 올스타(두산·SK·롯데·삼성·kt)에 대거 5실점을 하면서 5-5가 됐다.

1사 1루에서 나눔 올스타를 지휘한 김기태 감독은 김윤동을 투입했다.

김윤동은 노수광(SK)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마운드 진화에 나섰다. 김윤동은 김재호(두산)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구자욱을 삼진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6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어진 7회초 나눔 올스타가 역전에 성공한 뒤 10-6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나눔 올스타는 4년 만에 승리를 가져왔고, 김윤동은 승리투수가 됐다.

1.1이닝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김윤동은 이날 올스타전 우수투수가 되면서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김윤동은 처음 1군 올스타전에 참가했던 지난해에는 퍼펙트 히터 초대 우승자로 등극, 200만원의 상금을 챙겼다.

지난 2013년에도 시상대에 선 경험이 있다. 당시 김윤동은 퓨처스 올스타로 포항을 찾았고, 2이닝 무실점 호투로 우수투수로 선정되면서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다시 한번 ‘별들의 잔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윤동의 올스타전 누적 상금은 550만원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